

2019 세계수영대회 선수촌 대상지 윤곽

남부대서 차로 15분 거리 운암주공 3단지·송정주공 '주목'

〈메인경기장〉

광주시, 건립 기준·교통 등 대상지 선정 방식 확정

선수촌 사용 별도 인센티브 지급 않기로...내년 3월 발표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후보지를 선정하는 세부 가이드라인의 윤곽이 드러났다.

광주시는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영대회 선수촌 건립 자문위원회의를 열고 선수촌 대상지 선정과 관련한 기본평가 항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선수촌 건축 일정이 촉박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선수촌 대상지 선정 평가방식을 기한 내(2019년 4월) 건립 가능 여부 70점, 교통 편리성(선수단 버스 운행 가능 등) 20점, 규모 적정성 10점 등 100점 만점으로 정했다.

다만 애초 평가 대상 항목이었던 주민 참여도는 지역 내 과도한 경쟁을 우려해 제외했으며, 대신 주민동의를 95% 이상 얻도록 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

민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사용료 추가 지급 부문을 의식한 듯 선수촌 실제 사용기간만 사용료를 지급하고, 별도의 인센티브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자문위는 또 선수촌 건축기간을 고려해 주택 재건축(아파트)은 1000세대가 넘고 조합설립이 인가(완료)된 곳, 재개발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선수촌 건축기간이 최소 4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조합 설립이나 정비구역 지정하느라 시간이 지체될 경우 자칫

선수촌 건립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문위는 이와 함께 단일 대상지의 규모가 4500가구 안팎이고 1순위로 평가된다면 해당 대상지를 단독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내용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단 시민 민원상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무조건 제외하는 등의 단서 조항도 담았다.

현재 광주지역 내 50여곳의 재개발·재건축 지역 중 단독으로 4500가구 안팎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서구 관동동 재개발지역(5300세대)과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

지역(4000세대) 등 2곳 정도다.

다만 애초 선수촌이 2~3개 자치구로 분산 배치가 예상됐던 만큼 1개 지역으로 확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U대회 선수촌 아파트가 도심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했다는 점에서 아파트 재건축 쪽으로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노후 아파트 재건축 지역 중에서는 북구 운암주공 3단지, 광산구 송정주공 아파트 등이 유력 대상지다. 이들 지역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메인 경기장인 남부대에서 승용차로 15분 안팎이면 도착이 가능해 접근성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다음달 15일께 최종 자문위를 열고 선수촌 대상지 평가 가이드라인을 확정된 뒤 연말까지 평가위원회를 구성, 각 구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시는 내년 1월 중으로 각 구청의 신청지에 대한 현장실사를 마치고, 3월까지 선수촌 대상지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019년 7~8월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는 캠프인선(16일)대회와 마스터스(15일)로 구분돼 31일간 개최되며, 2만여명의 선수, 임원, 운영요원 등이 참가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연평도 포격 도발 4년...

연평도 포격 도발 4주기(11월 23일)를 맞아 앞둔 18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의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묘소에서 참배객들이 묵념하고 있다. 뒤쪽으로 두 전사자의 사진으로 조성된 '추모의 언덕'이 보인다. /연합뉴스

“이웃사랑으로 추운 겨울 녹여주세요”

광주·전남 공동 모금회 103억원 목표...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광주·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사랑의 온도탑'을 세우고 이웃돕기 모금활동에 들어간다. 양 시·도의 모금 목표액은 103억4000만원으로, 100억원대에 첫 진입했다.

광주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일 오전 10시 30분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도탑 제막식을 갖는다. 시는 올해 모금 목표액으로 지난해보다 2% 늘어난 33억9000만원으로 정했다.

전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에 앞서 19일 오후 3시 전남도청 진입로 사거리에서 이낙연 전남지사 등이 참석해 제막식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도의 올해

모금 목표액은 전년 대비 4.7% 늘어난 69억5000만원이다. 도는 특히 지난해에 65억원의 목표 모금액을 훌쩍 뛰어넘는 68억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올해 전국 모금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73일간 17개 시·도 지자체에서 전개되며 전체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약 5% 늘어난 3268억원이다. 지난해 캠페인은 2013년 11월 20일 시작해 캠페인 시작 55일만인 지난 1월 13일에 모금 목표액인 3110억원을 돌파했고 최종적으로는 모금 목표액의 138.1%인 4295억원을 모아 사상 최고 모금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캠페인 슬로건은 지난해와 동일한 '작은 기부, 사람의 시작입니다'로 정했다. 일시 기부

를 원하는 사람은 ARS 전화(060-700-1212)나 #9004로 문자를 보내면 통화한 건과 문자 한 건 당 2000원씩 기부가 된다. 또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읽고 선택해서 기부하는 나눔사이트인 '행복주식거래소', 스타의 애장품을 구매하면 저절로 기부가 되는 온라인 자선경매 사이트 '스타애장품 자선경매' 등을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 방법의 다양화로 모금액이 매년 늘고 있다”며 “일시기부 이외에도 계좌이체를 통한 기부, 직장인이 급여 일부를 기부하는 직장인 나눔, 사랑의 열매 콜센터(080-890-1212) 등을 통해서도 정기기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김형호·조익상 기자 '이달의 기자상'

한국기자협회 선정

한국기자협회는 제290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광주일보 사회1부 김형호 기자와 사회2부 조익상 기자의 '한빛원전 방사능 유출·은폐 의혹' 기사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인 광주일보 보도는 한빛원전에서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내용을 최초로 확인, 연

속보도했다.

특히 한국기협은 김 기자 등이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방사능 유출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사실을 취재·보도하는 등 방사능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전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또 광주일보 보도 이후 전국 신문과 방송은 기사와 논평으로 한빛원전 방사능 외부유출과 원전 측의 고의 은폐에 대한



김형호 기자 조익상 기자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원전을 둘러싼 안전문제를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시켰다.

시상식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이종행기자 golee@

중 신혼부부 1000쌍 웨딩촬영하러 전남 온다

전남도-상하이시 협약...보성 차밭·순천만 등 인기

내년 4월 100쌍을 시작으로 1년간 최소 1000쌍의 중국 신혼부부가 웨딩 촬영을 위해 전남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산재, 보성차밭, 순천만, 경도 등이 웨딩 촬영 장소로 중국 신혼부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18일 “중국인들의 웨딩 촬영 상품 개발을 위한 현지 답사단(대표 차오 사오사) 5명이 19일까지 5일간 전남과 광주를 둘러본다”고 밝혔다. 이번 답사단 방문은 지난해 31일 이남

원 전남지사 중국 순방 시 상하이에서 관광객 유치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답사단장인 로드컨설팅 대표이사 차오 사오사씨는 지난해 5월 결혼 후 남편의 고향에 와 인근 한옥호텔 영산재에서 전통예 체험을 하고 관련 내용을 곧바로 자신의 중국 SNS에 사진과 함께 올렸다.

이후 중국 내 지인들이 특별한 관심을 보여 전남도와 연락해 웨딩촬영 상품 개발 협약 체결로 이어졌다. '온라인 마케팅'의 위력과 함께 프리미엄 전남 여행 상

품 개발의 첫 신호탄으로 중국여행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답사단은 중국 최대 웨딩촬영 전문회사인 백합경전그룹의 천광광 대표도 참여해 귀국 후 연말까지 상품 개발을 마치고 내년 2월 중국 최대 웨딩박람회 관련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답사단은 아름다운 장소로 꼽히는 영산재, 농업박물관, 유달산, 보성차밭, 오동도, 순천만, 경도를 비롯해 담양, 영광, 함평 등 8개 시·군 17곳과 광주 충장로 등을 찾은 예정이다. /윤원희기자 chadol@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로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트롭' 노인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상무지구 방면
운암동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수시입출금
자신만만자유예탁금

매일 이자 받는 통장! 단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쏙쏙!! 재테크의 필수!!

최고 연 2.6%

예금자보호 OK! 각종 수수료면제 OK! 급여통장 OK!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OK! 체크카드 할인·적립혜택 OK!
예금금리우대 적용까지 다 되는 자신만만자유예탁금!!

이자지급 : 300만원이상 금액 단계별 6단계 차등이율 적용
(300만원 미만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예금자보호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수수료면제 | 수표발행수수료,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스마트뱅킹 청구수수료, sms수수료, 수수료 무료혜택 확대

서양새마을금고

본점 671-5000
주유소사업소 720-2880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